

특집

□ 石油市場동향과
전망 □

OPEC의 石油政策과 전망

洪 性 敏

(外大 中東問題研究所研究員 겸 講師)

I. 머리말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油價하락의 원인은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가 價格危機의 시기였다면, 80년대는 需要危機의 시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OPEC산유국들도 스스로 결정한 카르텔가격인 公示價格을 무시하고, 최고 배럴당 4 달러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어 油價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생산 및 수출이 격감한 사우디가 原油의 할인판매로 증산 및 수출증대를 도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OPEC의 가격방어체제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1979년만 해도 OPEC의 산유량은 하루 3,000~3,100만 배럴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지난 5월 중에는 1,450만배럴로 20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함으로써 減産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石油소비국들은 이미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은 바 있지만, 그토록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던 OPEC 카르텔도 이제는 체질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아랍든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소비국들은 OPEC의 붕괴 가능성과 石油危機의 불안이라는 모순된 상황하에서 지속적인 油價하락의 好機를 맞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油價하락을 방어하려는 산유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 OPEC총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되어 산유국들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 바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OPEC산유국들의 정책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그들의 여건변화를 살펴 보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소비국들의 대응자세를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의 油價展望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OPEC의 石油戰略

1960년대 OPEC회원국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감의 결여와 1951~53년 이란의 경험이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잉여수출능력, 즉 공급과잉과 實質價格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OPEC는 1973년 10월 메이저와의 가격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 배에 달하는 油價의 대폭 인상(11.65달러)을 단행하였으며, 곧이은 禁輸조치와 石油의 무기화로 소비국들에게 1次 石油危機를 안겨 주었다. 1974년에는 사업 참가비율을 60%로 인상·확대하여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권이 완전히 산유국의 권한으로 이전되어, OPEC는 史上最強의 카르텔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시작된 세계경기의 침체와 그후 5년간에 걸친 石油수요의 감소 및 OPEC의 활동약화로 OPEC는 인플레이의 逆輸入과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石油收入의 감소를 맛보아야만 했다. 1978~79년의 이란革命으로 과잉공급되던 원유는 다시 부족하게 되었고, 소비국의 과열경쟁으로 나타난 假需要때문에 2차 石油危機가 다시 도래하였다. 산유국은 원유의 판매를 직접 판매방식(G-G 또는 D-D거래)으로 전환하여 「低生産·高油價」라는 생산·판매정책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 OPEC회원국들은 장차 석유가 고갈될 시기에 대비하여 석유자원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생산량에 上限線을 설정하지는 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79년의 이란혁명에 공급을 감소시키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좋은 경험을 산유국에 안겨주었으며, 이는 資源보존 효과와 實質收入 증대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OPEC의 生産·價格政策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상의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는 근저에는 OPEC를 내부균열로 유도할지도 모르는 OPEC 내부의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및 南北問題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석유소비가 감소된다면, 빈곤국들은 먼저 가격을 인하하여 시장확보를 꾀할 것이다. 그리고 收入의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증산을 하려할 것이다. 산유국들은 증산여력은 있지만, 시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참고 견딜 것이다. 그러나 가격인하와 증산이 계속되면 부유한 국가도 이러한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OPEC카르텔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더우기 선진국이 대체에너지를

대체적으로 이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OPEC회원국은 모두 石油收入의 증대를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유가하락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이유로 OPEC내의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유가를 인하하여 카르텔을 붕괴시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가난한 나라가 시장확보를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려할 때, 부유한 나라는 이들에게 필요자금을 貸付하여 OPEC의 붕괴를 저지하고 있다.

더우기 일부 원유만의 가격인상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소비국들에게 어느 정도의 對應彈力性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好·不況에 따라 석유수요는 달라질 것이며, 에너지 절약과 갖가지 석유稅制에 의하여 석유소비의 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0년 유가의 폭등과 세계경기의 후퇴로 석유수요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OPEC는 감산으로 대응함으로써 1차 석유위기의 實質價格 하락이라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석유수입의 확보를 위한 OPEC와 非OPEC산유국의 증산으로, 1985년 현재 세계경기의 침체, 석유의 소비절약정책, 그리고 代替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확대 등에 따라 석유의 공급이 과잉되어 油價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석유의 사용은 단기적 현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사회적 개발이 石油政策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정책의 특성은 (1) 자원의 절약, (2) 石油收入의 효과적 사용, (3) 세계경제의 안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低生産·高油價라고 하는 OPEC내지 中東산유국들의 기본전략에는 한계점이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非OPEC를 포함하는 선진소비국의 原油생산과 代替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은 이들의 油價결정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產油國의 여건변화

1980년 이후 원유의 공급과잉과 유가 하락으로 실질소득의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OPEC는 그들 나름대로의 여건에 대응해가면서 새로운

〈表-1〉 非OPEC국가들의 原油生産推移

(單位: 千B/D)

| | 英國 및 노르웨이 | 멕시코 | 아프리카 (이집트제외) | 이집트 | 인도 및 브라질 | 기타 | 計 |
|-----------|--------------|---------|-----------------|-------|-------------|-------|---------|
| 1973 | 35 | 550 | 270 | 255 | 322 | 2,563 | 3,995 |
| 1974 | 35 | 640 | 310 | 230 | 330 | 2,525 | 4,070 |
| 1975 | 221 | 805 | 293 | 295 | 350 | 2,630 | 4,532 |
| 1976 | 524 | 930 | 217 | 332 | 359 | 2,729 | 5,091 |
| 1977 | 1,055 | 1,050 | 321 | 418 | 378 | 2,792 | 6,014 |
| 1978 | 1,451 | 1,330 | 333 | 484 | 399 | 2,907 | 6,904 |
| 1979 | 2,004 | 1,616 | 355 | 525 | 444 | 2,998 | 7,942 |
| 1980 | 2,174 | 2,154 | 401 | 635 | 387 | 2,942 | 8,693 |
| 1981 | 2,338 | 2,554 | 432 | 690 | 534 | 2,944 | 9,492 |
| 1982 | 2,620 | 3,003 | 461 | 710 | 672 | 2,982 | 10,448 |
| 1983 | 2,972 | 2,953 | 526 | 726 | 819 | 3,111 | 11,107 |
| 增減, 73-83 | + 2,937 | + 2,403 | + 256 | + 471 | + 497 | + 548 | + 7,112 |

註: 美國 및 캐나다 제외.

〈資料〉 OPEC Review, Vol. 14, No I, Spring 1985.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산유국의 여건변화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OPEC는 石油시장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OPEC의 자세가 현실화한 원인은 석유수요의 감퇴와 非OPEC의 석유공급 증가에 따른 지위의 저하 이외에도 산유국 스스로가 판매자로서 등장한 점이 중요하다. 非OPEC국가들의 原油생산은 〈표-1〉과 같다.

둘째로 OPEC, 특히 中東석유의 대부분은 단기 계약이나 現物市場거래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現物市場(Spot market)의 市況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산유량의 상한선을 각국에 할당해서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안정화를 이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째로 석유제품 수요가 急下落하였다. 1979년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하루 5,210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1983년에는 4,460만 배럴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代替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에 기인한다.

네째로 제품별 수요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산업용 重油가 석탄이나 천연가스로서 대체되어 대폭

감소한 반면,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의 가격하락은 완만하였다.

다섯째로 산유국들 스스로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국내수요의 輸入代替에 나서면서 제품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歐美의 석유회사들은 국내수요 감퇴와 제품수입의 증대로 정제설비가 과잉상태가 되자 정유공장을 과감하게 폐쇄하거나 정제능력을 삭감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내수용 정제공장과는 별도로 輸出專用정유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여섯째로 석유위기에 대해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石油收入의 감소뿐 아니라 일부 國家에서는 심각한 外債難에도 시달리고 있다. 1982~86년의 OPEC 가맹국 전체의 누적적자는 1,69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OPEC의 輸入코스트는 OECD의 인플레이가 1% 움직일때마다 약 15~25억 달러씩 변화한다.

예상되는 적자를 모두 없애려면 높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므로 산유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산유국들은 필요하다면 赤字보완수단으로서 1986년까지 은

행예금과 日本大藏省證券 등의 유동자산 총 1,400억 달러를 회수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름은 國際石油市場에서 OPE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自由世界原油 확인매장량의 60% 이상이 中東지역에 부존되어 있으며, 그 생산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 때문에 中東이 세계 최대의 매장지역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油價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우디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V. OPEC의 政策변화

1980년 이후, 세계의 석유소비량 감소추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과 세계 각국의 代替에너지 개발로 인한 脫石油型으로의 소비구조전환 및 高價油에 따른 수요감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 구성된 OPEC의 長期油價戰略은 유가를 첫째,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을 둘째, 주요통화의 환율변동세째,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등에 연동시켜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OPEC의 실질구매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은 ① 유가급등 ② 수요감퇴 ③ 공급과잉 ④ 유가인하압력 및 OPEC산유량 격감으로 이어진 최근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실질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유가를 그때 그때의 수급사정 등에도 연동시키자고 했다.

세계 최대의 석유수출국인 사우디는 최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현물로 석유를 판매하는 새로운 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가 석유수출을 늘리고 현물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이 새로운 판매방식에 대해 메이저들과 OPEC회원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수입국들과 전문가들은 國際石油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우디는 새로운 판매방식을 통하여 現物油價가 公示價格을 크게 상회할 경우에는 현물시장에서 석유판매를 늘리고 現物油價가 公示價格을 크게 하회할 경우에는 현물시장에서의 석유판매를 감소시켜 현물유가의 급격한 騰락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公示價格의 안정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油價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우디의 長期石油政策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아름은 1985년 7월 현재까지도 국제原油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주요 석유시장의 現物油價는 公示價格보다 1.5~3 달러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非OPEC 산유국들은 자국산 수출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OPEC의 가격정책을 추종해 온 멕시코와 새로운 도전자로 등장한 中共도 이러한 인하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사우디의 輕質油(Arabian light)의 경우, 최근 배럴당 26.5달러 수준으로 공시가격인 배럴당 28달러를 1.5달러나 하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가하락의 원인은 수요면에서 첫째,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성장둔화 둘째, 하절기의 계절적 수요 세째, 유가하락을 기대하여 매입을 기피하는 선진국기업 네째,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계의 석유수요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공급면에서는 OPEC가 하루 1,000만배럴 이상의 잉여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외에 非OPEC 산유국들의 꾸준한 증산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油價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현물유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의 非OPEC산유국들도 경쟁적으로 유가를 인하하고 있다. 현물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英國의 브렌트(Brent)油도 지난 6월 공시가격을 배럴당 26.50달러로 1.4달러 인하하였으며, 노르웨이도 약 1달러 가량을 인하하였다. 한편 6월 17일에는 OPEC의 정책을 지지해온 멕시코가 重質油인 마야(Maya)油價를 배럴당 25.5달러에서 24달러로 인하하였으며, 이와 함께 中共도 배럴당 60센트를 인하하였다. 이와 같이 현물유가가 공시가격을 크게 하회하고, 경쟁상대인 非OPEC 산유국들도 경쟁적으로 유가를 인하함에 따라 OPEC가 정한 공시가격대로의 수출은 어렵게 되었다. 이에 OPEC회원국들은 공공연하게 공시가격이하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이라크와의 간헐적인 전쟁으로 석유수출이 부진하게 되자, 代金決濟期日의 연장, 운송보험료의 부담 등의 방법으로 최고 배럴당 4달러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우디는 지난 6월 20일

油價 할인을 제의하였다. 유가할인의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최근 사우디의 생산감소를 들 수 있다. 사우디의 석유생산은 지난 5월 중에 하루 250만 배럴 이하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80년대 초 하루 1,000만 배럴 생산의 약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타 회원국들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5월중 OPEC 전체의 하루 생산량은 1,450만 배럴을 기록하여 지난 20여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사우디의 산유량이 격감하게 된 이유는 여타 회원국들이 공시가격이하로 판매하게 됨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우디가 販路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우디는 더 이상의 감산을 계속하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소비국과 非OPEC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하락추세가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정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이것이 새로운 유전개발투자과 대체에너지개발 노력을 감소시킬 경우 새로운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OPEC 회원국들은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OPEC가 붕괴되면 또 다른 에너지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석유소비국들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英國, 멕시코의 OPEC 가입을 환영하며 공동정책수립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V. 맺는 말

지난 7월 22일 OPEC총회에서 생산감축과 가격할인(사우디案)이라는 앞으로의 최대의 관심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9월로 미루어졌다. OPEC 내에서 가격할인을 지지해온 사우디가 리비아, 알제리 및 이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회담이 결렬

되었다. 인도네시아 석유상 수브로토(Subroto)는 더 이상 석유시장에서 非OPEC산유국들의 침식을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1979년 세계석유시장에서 63.4%를 차지하던 OPEC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해에는 42.8%, 그리고 금년에는 거의 3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산감축으로 現油價를 유지하는데는 한계에 달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생산감축으로 유가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어렵다는 見解를 피력하였다.

현재 油價인하의 원인은 경기침체, 수요감퇴, 非OPEC의 시장개입,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전환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세계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최소한 몇년간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첫째, OPEC의 油價방어여부는 OPEC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현시점에서 OPEC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外債, 전쟁, 개발계획의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OPEC회원국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생산한도 위반, 가격 할인 등을 자제하기 힘들 것이어서 OPEC카르텔은 다소 악화될 것 같다.

둘째, 앞으로도 2~3년 동안은 非OPEC 산유국들의 석유생산은 증가될 전망이다. 세째,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소비구조의 전환 등으로 石油수요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80년대 이후 세계 석유 시장에서 OPEC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함으로써 OPEC의 영향력보다는 시장원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동안 油價인상은 인상폭 만큼의 대체에너지源의 개발과 이용을 유도할 것이다. 만약 산유국의 석유생산비가 다른 대체에너지원의 생산비를 상회하게 되면 대체에너지원의 이용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代替에너지源의 개발지연은

〈表-2〉 平均公示價格의 추이와 전망

(單位: \$ / B)

| | 1975 | 1980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
| DRI | 11.02 | 30.46 | 28.58 | 26.75 | 26.50 | 26.60 | 28.00 | 30.00 | 32.50 |
| WEFA | 11.02 | 30.90 | 29.09 | 27.80 | 27.63 | 27.64 | 30.26 | 32.79 | 34.89 |

〈資料〉 DRI, European Long-Term Review, March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85.

장기에 걸쳐 油價인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만일 이러한 인상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상폭은 1, 2차 危機時와는 다르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平均公示價格의 추이와 전망은 <표 - 2>와 같다.

또한 OPEC의 기본적인 성격은 경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石油는 아랍·이스라엘분쟁을 비롯해서

美·蘇관계 및 南北問題 그리고 최근의 이란·이라크관계 등 정치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油價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지만 정치적 안정과 주어진 여건에 급작스런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油價 하락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 石油市場전망 □

4/4분기 油價展望

현재 간신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원유가격이 오는 4/4분기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RI는 최근 발표한 油價전망에서 현재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공식가격은 현물가격 및 정제가치(Netback value)에 비하여 상당히 overprice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OPEC의 평균공식가격은 다음 임시총회(10월 3일)나 정기총회(12월 7일)에서 배럴당 1달러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DRI는 석유수요가 회복될 전망이 없을 경우, OPEC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판매전략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DRI는 새로운 판매전략에는 시장통제기구(Marketing Controlling organization or clearing-house), 변동쿼터 또는 收入쿼터(Revenue quota) 제

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DRI는 이 전망에서 두가지 시나리오를 想定하였다. 하나는 기준시나리오로서 (1) 사우디의 산유량이 2.6백만~2.8백만B/D 수준에 머물고, (2) 非OPEC의 산유량은 여름철 유지보수로 인해 9월 이후에야 정상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이며, 또 하나는 이 기준시나리오에 대한 代替시나리오로서 (1) 사우디의 산유량이 3.8백만B/D로 증가하는 경우이며, 나머지는 기준시나리오와 같은 경우이다.

DRI는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현물가격과 공식가격이 각각 배럴당 1달러 정도 인하될 것이며, 代替시나리오의 경우는 평균현물가격이 배럴당 3달러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

OPEC產 原油價格의 추이 및 전망

(單位: 백만B/D, \$/B)

| | | 1 9 8 5 | | | | | | | |
|--|-------------------------|---------------------|---------------------|-------|-------|-------|-------|-------|-------|
| | | 5 月 | 6 月 | 7 月 | 8 月 | 9 月 | 10 月 | 11 月 | 12 月 |
| 產油 量 | O P E C | 14.86 ²⁾ | 13.81 ²⁾ | 14.18 | 14.83 | 14.82 | 14.85 | 14.95 | 14.95 |
| | 사우디 | 2.65 | 2.33 | 2.53 | 2.78 | 2.61 | 2.79 | 2.80 | 2.80 |
| | 非 O P E C ¹⁾ | 19.02 | 18.54 | 18.42 | 18.76 | 19.00 | 19.20 | 19.27 | 19.29 |
| 價格 實績 및 展 望 | 基準시나리오 | | | | | | | | |
| | OPEC公式價格 | 27.44 | 27.43 | 27.35 | 27.33 | 27.38 | 27.12 | 26.42 | 26.45 |
| | (前月對比) | -0.08 | -0.01 | -0.08 | -0.02 | +0.05 | -0.26 | -0.70 | +0.03 |
| | OPEC現物價格 | 26.10 | 25.85 | 25.91 | 26.27 | 26.24 | 25.60 | 25.34 | 25.48 |
| | (前月對比) | -0.79 | -0.25 | +0.07 | +0.35 | -0.03 | -0.64 | -0.26 | +0.14 |
| 代 替 시 나 리 오 ³⁾ | OPEC現物價格 | 26.10 | 25.85 | 25.91 | 26.09 | 25.32 | 23.85 | 23.22 | 23.42 |
| | (前月對比) | -0.79 | -0.25 | +0.07 | +0.17 | -0.76 | -1.47 | -0.63 | +0.21 |

(註) 1) 非OPEC은 미국,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멕시코임.

2) PIW에 의하면, 5월은 14.8백만b/d, 6월은 13.7백만b/d임.

3) 사우디產油량이 3.8백만b/d의 경우임(단, OPEC 公式價格의 실적 및 展望은 基準시나리오와 동일)

(資料) DRI, European Oil Spot Market Service, 85/8.